

월요광장

뭐니 뭐니 해도 ‘정(情)세권’이 최고



김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아름다운 빛을 한껏 받으며 담양 읍내 길을 걷고 있었다. 누군가의 집 앞에 자란 탐스러운 무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춰졌다. 가을 석양에 반짝거리는 푸른 무 정을 흘린 듯 들여다 보고 있자니 요즘의 막대한 심정과 상심이 한순간 떨어져 나가는 듯 했다. 그리고는 ‘아, 예쁘다!’란 말이 절로 입에서 새어 나왔다. 순간 어디선가 어르신 목소리가 들렸다. ‘무 하나 줄까?’ 석양을 등지고 저녁 해에 둘러싸인 어르신은 해맑은 웃음을 지으시며 낮은 담장 너머 서 있는 이방인에게 탐스러운 무 하나를 뽑아 건네주셨다. ‘필요?’나 ‘거 누구요?’ 대신 무를 갖고 싶다는 질문은 당신의 너그럽고 풍요로운 마음씨가 담긴 인사말이었다. 흙이 다 털리지도 않은 무를 받으며 마치 중세시대 영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은 양 찬찬한 영광과 감동을 느꼈다. 담양에서 광주로 오는 길 내내 그 어르신과 무를 생각했다. 이 경험에 대해 외국인인 남편은 한국의 정이 바로 이런 거라며 지난 한국과 지금의 한국에 대해 토론했다. 그나마 바뀌지 않은 건 오늘 같은 시골의 인심과 정뿐이라며 그래서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

다. 아닌 게 아니라 분명 그의 말처럼 이 같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겨운 풍경과 경험을 서울에서 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올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46만여 명이라고 한다. 그중 절반 정도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한다고 하니 국토 면적의 10분의 1만한 면적에 한국의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셈이다.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성장 가도를 유지하고 개인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진입하여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가 되었다. 어느 곳에서나 경쟁을 해서 뒤쳐지지 않고 서울로 가야만 하는 사회가 된 한국은 옆에 앉은 반 친구가 나의 경쟁 상대가 되게 하고, 친구와 이웃을 만들지 않도록 조장한다. 모두가 세뇌라도 당한 듯이 서울에 가야만 하고 서울에서 취업해야 하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고 사는 것이 성공으로 간주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선각자들은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해왔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분권 운동에 앞장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수도권 인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절반을 넘었고 권력과 돈은 마치 블랙홀처럼 서울과 수도권으로 빨려가고 있다. 이렇게 과밀하게 몰린 도시에서 어떻게 인심과정이 넘쳐날 수 있을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울에서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역세권’ ‘숲세권’ ‘공세권’ 등 아파트 분양 광고에 줄줄이 나열되는 다(多)세권을 강조하는 서울 아파트들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다. 그건 바로 ‘정(情)세권’이다. 정은 사랑이나 친근함을 느끼는 마음이며, 사물이나 대상에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다.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만남 속에서 친절함과 배려가 없다면 어찌 요즘 같은 팍팍한 삶에 재미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는 말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사소한 배려와 정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 행복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넘친다 해도 사람 사이 정을 나누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베푸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런 미덕이야말로 ‘정’이다. 시골의 가을 풍경은 그야말로 풍요롭다. 복잡한 생각과 가슴 아픔을 다독이는 따뜻한 햇살만큼이나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정은 나보다는 남을 우선한 감정으로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할 때 생겨나는 감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적 차원의정이 필요한 시기에 풍요로운 시골의 가을 정취와 인심에 젖어 나는 지인들에게 용기를 내어 말하고 싶다. ‘친구들이여, 갑갑한 서울살이 그만들 하고 여기 정세권 최고인 동네로 오세요’

수필의 향기

청산도 수학여행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바다는 맑고 투명했다. 하늘과 데칼코마니였다. “정지만 생물이 아니라, 인간도 생물이다.” 정치 이야기를 하던 친구가 문득 탁자를 치며 말했다. 우리도 생물이니 내일 생사조차 알 수 없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의기투합했다. 목적지는 금방 청산도로 정했다. 삼라만상이 변하고 제행무상인 세상에 우리만 말고 불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도 시야를 넓히고, 우정도 돈독하게 쌓자는 것이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친구다. 친구는 두 번째 나다. 그러므로 너는 곧 나다. 좀 발칙하고 해괴한 논리였지만 금방 스무 명 남짓 회합을 맞은 시골 친구들이 청산도 수학여행 길에 올랐다. 까불까불했던 경유이는 청바지를 입었고, 자전거 통학을 했던 회영이는 멀미약을 들었다. 승용이는 배낭 가득 먹거리를 가져왔다.

여행은 충분히 우릴 젊게 했다. 누군가 배 위에서 동요를 불렀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가면...’ 우린 합창이라도 하듯 따라 불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옛날을 끄집어냈다. 체육대회와 소풍 이야기가 나왔고, 또 몇 선생님 이야기를 꺼내서 그때를 추억했다. 옛날은 꽤 괜찮은 안주였다. 첫사랑 이야기는 핵심 메뉴였다.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여자아이 중에서 우린 몇 아이만 좋아했다는 점이다. 겹치고 편중된 첫사랑. 키스는커녕 손조차 잡아보지도 못한 애가 탄 이야기는 처음만큼이나 시작은 거창하였으나 끝은 언제나 흐지부지 미완성이었다. 청산도는 꽤 괜찮은 섬이다. 이런 곳에 이제 왔더니 좀 미안했다. 낮은 지붕과 납작납작한 돌담, 온돌식 다랑논을 보면서 갖은 왜구의 출몰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맞서 살아간 청산도 사람들의 지난한 삶이 피부로 다가왔다. 늘 청산도를 꿈꾸며 살았다. 그런 청산도 역시 낙원은 아니었다. 우린 가던 길을 멈추고 어느 호젓한 방파제에 차를 세웠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며 파도가 코르스를 했고, 단체 사진을 찍으면 낚싯배와 갈매기가 멋진 배경이 되어주었다. 친구 이야기 중에는 간혹 생활이 어려운 친구 이야기도, 결혼에 실패한 이도, 몇 해 전 교통사고로 먼저 간 이의 이름도 나왔다. 또 암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며 웃고 살자고 길길거리기도 했고, 또 우리 등딱지가

에 바짝 붙어 따라온 시간, 오늘을 떼어 내려 애를 썼다. 한 친구가 그랬다. “오래 걸으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잘 살려면 좋은 친구, 좋은 인연이 필요하다.” 모두 킁킁거리며 손뼉을 쳤다. 다음 친구가 또 외쳤다. “오늘처럼 한날한시에 항구네 가자.” 우리 모두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런데도 누구나 반대한 이가 없었다. 모두 탁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깔깔깔 웃었다. 그리고 좌우로 친구를 바라보며 또 웃었다. 행복은 낮에 먹은 멧게처럼 붉게 익어갔다. 늦가을 햇살이 노년으로 가는 우리를 포근하게 비추주었다. 몇이 다음에도 또 오자고 했다. 우린 그러자고 약속하고 각자 헤어졌다. 하지만 다음에 누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태 그랬던 것처럼 세월은 또 우리 중 몇 녀석을 저 멀리 떼어 놓을 것이다. 여행은 자연스럽게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게 한다. 같이 걷다 보면 절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 자연히 슬픔은 나누고 행복은 더해진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시간, 우린 단방간 청산도가 준 선물로 마음 든든하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 등 뒤로 바다가 동요를 불러준다. 우리가 불렀던 동요이다.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노래에...’

기고

‘사이꾼’과 라이벌



김강호
여수여양중 교사

며칠 전 이태원에서 비극적 참사가 있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던 많은 젊은이가 유명을 달리했다. 갑자기 K의 머리엔 ‘사이꾼과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그 단어가 주는 메시지를 곱씹어 보기로 했다. 여름은 안방을 고한지 오래다. 그는 가을에게 인사도 없이 떠났다. 이젠 가을마저도 겨울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뭇잎도 한 잎 두 잎 땅으로 번지프톱을 시작했다. 그는 계절을 이어 주는 ‘사이꾼’ 역할을 하며 생을 머지않아 마감할 것이다. 나뭇잎은 K에게 사이꾼의 의미를 아느냐고 물었다. K가 어물쩍 넘어가려는 틈에 나뭇잎은 답을 태연하게 했다. ‘사이꾼은 사이와 사이를 이어주는 생명의 띠이다. 절벽과 절벽을 이어주는 생명줄과 같다. 이게 없으면 모든 생명은 죽는다. 사람의 목에 해당한다. 바로 목, 손목, 발목이다. 목은 머리와 가슴을 이어준다. 손목은 손과 팔을, 발목은 발과 다리를 이어주는 생명의 띠이다.’ 나뭇잎은 사이꾼 역할을 다하고 나면 인간 세상을 떠

날 것이다. 본연의 임무를 마쳤기 때문이다. 하찮은 나뭇잎도 짧은 생을 살다가 떠나지만, 가을과 겨울을 이어주는 생명선이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나뭇잎에게는 돌도 없는 친구, 라이벌(Rival)이 있다. 나뭇잎은 갑자기 들릴 듯 한 목소리로 ‘라이벌’을 불렀다. 그는 ‘라이벌’을 부른 것일까? 그는 자신이 가을과 겨울을 이어주는 사이꾼(생명끈)이 맞지만 생명의 끈을 잇기에 앞서 반드시 라이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이벌의 어원(語源)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라이벌은 리버(River)에서 왔다. 강물은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협력하게도 한다. 윗동네와 아랫동네 사람들은 강물을 사이에 두고 나뉜 감정을 갖고 살고 있다. 하지만 같은 강물을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이기에 상대가 싫다고 해서 그 강물에 독을 넣지는 않는다. 혹 그 강물이 마르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마을 사람은 미워도 경쟁하고, 싫어도 협력하며 살아간다. 결국 라이벌은 경쟁하며 돕는다는 의미이다.’ 나뭇잎은 인간 사회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사이꾼이나 라이벌과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지도자나 고위 공직자는 국민의 사이와 사이를 이어주는 생명의 띠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절대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가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지도자나 고위 공직자가 유의미

한 존재가 되어주길 소망했다. K는 사색에서 깨어났는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뭇잎의 말이 옳다고 외치며 희망을 그려 보았다. 그렇다. 지도자나 고위 공직자가 국민 사이의 끈을 이어주며 경쟁과 협력을 이끌어준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상식과 공정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불행 지수는 낮아지고 행복 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삶의 목적과 수단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 생명, 그 살아 있는 생명만 있으면 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의 정신을 얼마나 흥미하게 했는가? 겸손한 모습이 필요한 때다. 만약 정부가 국민을 온정(溫情)으로 품지 않고 냉정(冷情)으로 대한다면 국민의 가슴은 더 차갑게 얼어붙을 것이다. 정부는 결코 안하무인 격으로 국민을 대면해서는 안 된다. 그저 자신만의 권력과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면 된다. 그것이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과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사이꾼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의 사이와 사이를 이어 주는 생명의 끈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라이벌의 어원을 해석하며 국민과 선의의 정책으로 경쟁하며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혹 마지막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침묵하는 국민의 마음을 읽기 바란다.

社說

“지을수록 적자” 농사용 전기료 부담 완화를

농자재값과 인건비에 이어 농사용 전기 요금까지 급등해 쌀값 하락에 힘겨운 농민들의 시름이 가중되고 있다. 생산 원가의 끝없는 상승으로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한편은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용도별 단가가 서로 다른 전기 요금을 일괄적으로 kWh당 12.3원 인상했다. 이를 용도별로 환산하면 산업용 16%, 교육용 13%, 일반용은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업 생산·유통 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은 36%, 양·배수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농사용 갑’은 74%나 인상됐다. 농사용 인상률이 산업용이나 일반용의 네 배에 달한 것이다. 농자재값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무기질 일반 비료 1t당 가격은 63만 원, 원에 비료는 54만 원 가량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는 각각 126만 원, 89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여기에

면세유값과 인건비 또한 급등하면서 쌀 생산비가 3~4년 전에 비해 두 배나 상승했다는 게 농민들의 분석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산비에 반해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농민들은 수익은커녕 적자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또한 농사용 전기료의 급등은 전기 사용이 많은 농축산물의 생산비 단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해의 결실이 적자라면 농가 입장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어진다. 이는 농업과 농촌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농사용 전기 요금의 경우 산업용·일반용 수준으로 인상률을 재조정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인상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면세유와 비료, 농약 등 생산비에 큰 영향을 주는 자재값 상승에 따른 지원도 확대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할 것이다.

방치되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강화해야

‘이태원 헬러윈 참사’로 심폐소생술(CPR)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관리 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때 광주일보가 광주 지역 아파트 단지 다섯 곳을 찾아 AED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 중 세 곳은 엉망이었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비치된 AED가 고장이 났거나 가슴에 붙이는 패드 및 기기 배터리의 유효기간이 5개월 이상 지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은 AED가 어디 설치돼 있는지 알지 못했고,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경우 점검시간이나 퇴근 이후엔 사무실이 잠겨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관리 방식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관리 지침에 따르면 AED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해야 하는데 이는 의무 설치 시설 관리자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자가 자체 검사에서 이상을 감지하고도 ‘응급의료 지원센터 전산망’에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하면 고장 등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면적이나 이동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한 대의 AED만 설치된 곳도 많아 4분의 골든 타임 내 사용이 어려운 것도 문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에 비치된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4분 안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고층의 경우 아예 불가능하다. 응급 사고 발생 때 생명 소생을 위한 AED는 필수 장치이다. 그만큼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원활하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보완해 필요한 만큼 AED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 기관도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 도심 한복판에는 눈길 끄는 고분이 있다. 광산구 월계동 장고분이다. 임영진 전남대 교수는 광주 점단과학산업단지 개발이 한창이던 1992년 12월에 이 고분과 인연을 맺었다. 네 기로 알려져 있던 고분의 발굴을 맡았는데 한눈에 장고분임을 알아보고 보존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실은 네 기가 아니라 고분 두개가 잇달아 전통약기인 장고를 닮은 두 기였는데 일본에서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라 불리는 고분과 같았다. 우리 학계에서는 일본과 구분하기 위해 장고분, 전방후원형 고분 등으로 명명한 연구자가 많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월계동 장고분은 두 기가 모여 있어 특이했고 학술적 가치도 높았다. 당시까지 발견된 장고분은 극소수였고 대부분 단독분 형태였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월계동 장고분은 도굴 피해를 입고도 절반 가량 파괴된 상태였다. 공사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는 1993년 9월 1차 조사가 끝나자 이전 복원을 강행하려 했다. 고분이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역사적 가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장소에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계획된 도로의 선형이 변경돼 4300평이 유적 공원으로 보존됐고, 1994년 2월 광주시 기념물(제20호)로 지정됐다. 월계동 1·2호분에서는 분주토기·목기(무덤 주위에 세워놓은 의례용 토기와 목기) 등이 260여 점 쏟아져 나왔다. 일제강점기 나주 신촌리 고분에서 유사한 토기가 발굴됐지만 월계동 장고분을 통해 비로소 그 쓰임새가 명확하게 밝혀졌다. 현재까지도 장고분 피장자와 조성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밝혀낸 것은 한·일 교류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는 점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월계동 장고분은 두 기가 모여 있어 특이했고 학술적 가치도 높았다. 당시까지 발견된 장고분은 극소수였고 대부분 단독분 형태였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월계동 장고분은 도굴 피해를 입고도 절반 가량 파괴된 상태였다. 공사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1993년 9월 1차 조사가 끝나자 이전 복원을 강행하려 했다. 고분이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역사적 가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장소에 그대로

월계동 장고분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